

김영애 선교사(2020.08)

남아공 김영애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선교의 동역 자님 들께서는 별고 없이 평안하신지요? 저희 가정은 주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해 올려 드립니다.

1. 남아공 상황

감염자가 50만이 훌쩍 넘었고 매일 1만 5천명 정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곳곳에 강도와 도적떼들로 공포와 두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정 폭력과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매일 살인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58명 정도라고 합니다.

2. 사역자들 소식

* 사무라마셀 크리스천 센터 교회 존슨 목사님의 아내가 소천 하셨고 존슨 목사님은 입원 중인데 오늘 아침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몇 걸음 떼기도 한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 야간 신학교 빅토리아 전도사님은 어린 딸을 천국에 보내고 전도사님은 거의 죽다가 살아나 회복 중입니다.

* 랑가 지역 블레라니 목사님 아내도 위중한 고비를 넘기고 회복 중인데 자가 호흡이 가능하지만 힘겹다고 하십니다.

* 현지 교회 성도님들 중 천국 가신 분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3. 마르지 않는 샘물

배고픔과 감염의 공포로 힘든 시기가 시작되자 바닷물에 물 한 방울만큼 미약하게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도움의 손길들이 오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손길은 퍼내고 퍼내어도 다시 고이는 샘물의 기적이 되어 사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4. 야간 신학교와 유치원

야간 신학 수업과 세미나의 온라인 강의는 점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여전히 휴원 상태이고 비대면 식량 나눔의 장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도제목 드립니다.

1.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허락해 주소서
2.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진에 동참하는 손길들을 축복주소서
3. 병중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소서
4. 야간 신학교 온라인 수업에 은혜를 주시고 교수님들을 강건케 주소서
5. 진원이 진현이 영주권을 속히 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에 기쁨이 되는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게 주소서

선한 사마리아 인의 행진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구좌 번호 남깁니다. 하나은행 김영애 250 890000 10708

힘든 시기를 살아가지만 기도 속에서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옵고 부디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한 모퉁이에서 감사와 사랑을 담아 김영애 선교사 올립니다.